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

예배의기원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모일 수 있는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인도자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 씀 복되고 형통한 가정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2022년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소망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애써 일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한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형통한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정의 평안함을 약속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행복한 식사를 나누는 것은 가정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으며 말씀을 읽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구. 남문로 1가 154번지)

(043) 256 - 3817 ~ 8

셋째,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참으로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연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어서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패망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번영은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과 번영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번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김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기도 문 다 같 이

가족별 나눔의 시간 ... 감사한 것, 미안한 것, 기도제목 등... 다 같 이